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사실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파합니다...’
고린도후서 4:5

피터 워커

www.1peter1three.weebly.com

이 책자를 독자 여러분께 바칩니다.
제가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식으로 신학이나 성경을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많은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뚜렷한 입장을 견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진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서론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제대로
찾아오신 겁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 중 누군가는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지만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무슬림일 수도, 힌두교인일 수도,
불교신자 혹은 다른 종교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떤 것을 믿고 있는지조차
정의할 수 없는 지점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적 배경이 무엇이든지, 혹은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 어디에 있는지
상관없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심지어 당신이
‘예수님은 누구인가?’ 궁금해하고
물어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는 제가 다 다루고 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작은 책을 통해 저는 그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 생각을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책의
출처는 제 신앙, 성경, 그리고 성령입니다.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66 권의 책들의 ‘모음집’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많은 ‘진실’ 혹은 가치 있는 것이
그러하듯, 성경도 잘못 해석되기도 하고,
잘못 사용되기도 하고 의심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인간의 한계가 드러난다고 해도, 정직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료입니다.

성경은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해 쓰여졌고, 따라서 읽기도 쉽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절대 숨어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주님이
구원하신다’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그 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온전히 그분과 연결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이고 ‘왜’ 오셨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계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헤아릴 수 없는 진리이며 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히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토록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맞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그리스도는 ‘영 이고 진리’이며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계시’로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나와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머리로 떠올리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의 삶에서 매우 소중한
것들 – 친구, 가족, 기쁨, 사랑, 평화, 용서,
자비 등은 머리로 이해되는 ‘진리’는
아닐지 몰라도 마음과 영혼이 느끼는
사실들입니다. 실상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이성을 사용함으로써
‘마음의 진리’ 혹은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의 ‘머리(이성)’가 마음을 지배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내리게 된 결정을 후회하게
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작은 마음에 ‘딱 들어맞는 분’이거나
예측할 수 없는 나의 ‘이성’에 잘 맞는다면
참으로 그 분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작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말씀과 계시에 대해서 *‘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진리가 당신의 머리로는
의심 되지만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분은 사람들에게 돈이나 부를 제시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목이 마른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경제 생활에 ‘적합’하지 않고 우리의 이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말은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박히고, 물질적인 것 이외의 무언가를 추구하는 우리의 필요를 정말로

충족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네가 목마르냐?’가
당신의 영혼을 울립니까?**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여든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너희 중에 곤고한 자가 있느냐?*’ 물어보시고는 새로운 형태의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그 기적들을 행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번은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향하여 그가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자신이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몇몇 사람들의 일시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분에게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이름을 천국에 기록하기 위함을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은
이 ‘생명’, ‘안식’ 그리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님 스스로에게 초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이지, ‘사물’이나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분명히 ‘어떤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깊은 진리는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목적은 여러분과 내가 실제로 그분을 보고, 만지고, 알 수 있도록 하심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은 우리와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싶습니까?

믿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직접 그 분을 ‘볼 수’ 있었다면 굳이 ‘믿음’에 대해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믿음’에 관한 두 가지 생각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1.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혹시 소위 ‘친구’라고 하지만 정말 당신과 맞지 않는 사람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이 사람은 당신을 보고, 알고, 심지어 당신이 옆에 있을 때마다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실제로

당신에게 그 마음의 일부를 담은
것이죠.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경험 하거나 느낀적이 있습니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즉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그 분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믿음'의 관계를 맺기
위해 오셨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은 진정한 우정의 원동력
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너를 부르러
왔다 내 친구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해 희생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¹

2. 보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능력을 보았지만 그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쩌면 여러분도 가끔은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다면 좋을텐데...”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사람들, 아니 그분을 보고 그분의 기적을 목격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당히 많은 경우,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은 그분에게 더 *적대적으로*

¹ 요한복음 15:13-15

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를 ‘본’ 모든 사람들-그의 말씀을 듣고 그와 걸었던 사람들, 그의 기적과 능력을 즐겼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음모를 꾸미거나 그분을 떠났습니다. 그는 그를 ‘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닌 ‘믿음’의 영역으로 부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를 죽였죠.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확신을 가질 것이라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한동안 충성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우리의 시각과 이성과 감정은 우리를 실망시킬 것이고,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한 때 보고, 사랑했던 것에서 돌아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도마에게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보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즉, *받아들이고, 따르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진정한* 관계, 진정한 우정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눈이 온전해지고 마음이 견고해지는 그 영광스러움 속으로 들어가 그분을 *‘직접 대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지금 그분이 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당신은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보물

예수님은 왜 ‘보고’ 믿기 어렵습니까? 왜 온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며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유를 온전히 이해하고 파악하고 설명하기 어려우며 이것은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하고 고백한 반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경멸하며 그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한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을 보고 동시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그냥 인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사실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통해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깊고 조용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깊고 너무도 조용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보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의미가 그 사람의 마음 깊이 도달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영원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시는 너무 깊고 순전하고 고요하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이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표면적인 것들로부터 비롯되는 소음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에, 하나님의 깊은 것들은 우리를 지나칠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짧은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다시 밭에 숨겼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샀다.’*²

이제 당신에게 예수님이 보물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느낍니까?

² 마태복음 13:44

보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
즉 ‘얼룩’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의 가장
깊은 죄는 보통 혈흔을 남깁니다. 생명의
근원인 피는 폭력이 있는 곳, 학대가 있는
곳, 불행이 있는 곳, 죽음이 있는 곳에
쏟아집니다. 우리 모두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그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예제도와 학대에 기반한 세상에
살고 있으며 우리는 모두 피를 흘렸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피의 대가를 요구하는
물건을 소비했습니다. 이것은 원초적이고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이 피흘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어두움과,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은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해방시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분께서는 우리가 겪은
잘못과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서 우리를
해방 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영혼, 모든 마음,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땅까지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놀랍고 영적인 방법으로
'구속'과 '용서'의 길을 열어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에 대신 짊어지고 그 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구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죄가 있게 하신 것'.³

예수님께서서는 나의 죄와 수치를 친히
가져가셔서 그것과 함께 죽으셨습니다. 내

³ 고린도후서 5:21

죄와 함께 돌아가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 했지만 내 죄는 함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무덤에 죄를 남겨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지고 그것과 함께 죽으시고 용서와 새 생명만을 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은 이것을 이렇게 강하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의 피보다 *‘더 강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희생의 피,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분의 피로 ‘씻음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예수님께서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살아났고 천국에 계십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분을 ‘얼굴 대 얼굴’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곧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실에 대해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곧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고 그들 ‘안’에 거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⁴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그분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한 마을에 계셨다면, 다른

⁴ 요한복음 14:17,26,28

마을에는 계실 수가 없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평화의 손을 얹고
있었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공간과 시간에 제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온 땅에 부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모든 마을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가정에 동시에 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의
사명을 완수하신 후, 예수님께서서는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을 통해 그 분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분은 성령을
통해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거합니다. *‘하나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당신의
마음과 삶에 받아들이고 싶습니까?***

초대

예수님께서는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요한복음 10:9)

**지금 당신의 마음과 삶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싶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결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당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은 새로운 길에 들어서는 것이고 그
길은 ‘점점 환해져 정오의 해같이 될 것.’
(잠언 4:18) 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건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한 후 여러분이 마음으로 읽고 따라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도 작성했습니다.

1. 죄의 회개

먼저 당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도움으로, *돈을 사랑하는 것, 정욕, 탐욕, 거짓, 중독, 간음, 음란등과 같은*, 죄의 삶에서 돌이킬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회개란, '마음의 결정'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삶과 가정에서 명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에서 차단하고, 소통하고, 버리고, 끄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회개하기로 결단하고 ‘*돌이키기*(이것이 회개의 의미입니다)’를 원한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제대로 된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글의 앞에서 우리는 진정한 관계에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믿으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라고 하시고 그 분에 대한 믿음을 큰 소리로 선언하라고 하십니다. 당신이 직접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이 기도는 당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고, 진실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는 이 순간에 당신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천국에
기록할 것입니다!

기도

**주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위해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신실하게,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생명

예수님을 믿는 이 과정을 거쳤다면,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새로 태어난 ‘믿는 자’로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좋은 교회에
소속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믿는 자들의 도움으로 당신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없다면 구매할 성경을
찾아보세요. 인터넷이나 서점을 통해
‘개역개정’성경을 사면 됩니다. (영어
성경을 구매하려면 NIV 혹은 ESV 를
추천합니다-번역자 주)

저는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누가복음**으로 시작하고
계속 읽어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믿을만한 좋은 교회를 찾아보십시오.
좋은 곳으로 인도해주시도록 주님께
기도 드리세요. 주위의 믿을만한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교회를
추천해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매주
교회에 가는 것은 중요한 우선순위일
뿐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헌신(예배)'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정과 재정에 변화를 주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기억하고
존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신앙을 갖기로 결단했다면, 다음 장에
나오는 제 홈페이지를 통해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당신과 함께 기뻐하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늘나라의 가족으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과
풍성하게 하심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더 많은 자료들을 위해서, 제 홈페이지를
찾아주세요.

www.1peter1three.weebly.com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고, 너를
지켜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너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려다 보시고,
너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민수기 6:24-26

인용된 성경구절

당신에게 나아오라고 간청하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5:20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성경과 그의 영을

아는 것: 고린도전서 2:2-3

성경의 영감과 잘못된 취급: 히브리서

4:12/예레미야 29:13 (마태복음 4:1-11 &

고린도후서 4:2 참고)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성경의 저자들:

사도행전 4:13

주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 마태복음 1:21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사야 7: 14 / 마태복음 1:23;

이사야 9: 6; 요한복음 1: 1-5,9,14;

요한복음 8: 58 / 출애굽기 3:14; 요한복음

10:30; 요한복음 14: 9; 요한복음 9: 38 /
마태복음 14: 33 / 출애굽기 20: 5;
요한복음 5:46; 골로새서 1: 15-20;
히브리서 1: 3; 빌립보서 2: 6-11; 스가랴
14: 9 / 사도행전 4:12; 요한계시록 1 : 13-
18

**죄를 용서하고 영원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목적:** 누가복음 5:24; 요한복음
11:25-26; 요한복음 4:13-14

이해 불가능한 계시: 요한복음 6:37, 65;
마태복음 16: 16-18; 로마서 11: 33-36;
이사야 55: 8-9; 시편 36: 9; 고린도후서 4:
6; 요한복음 4:24 & 요한복음 6:63

예수님을 믿음: 요한복음 7: 37-38;
요한복음 11: 25-26; 요한복음 9:35;
마태복음 11: 28-30; 누가복음 5:24;
누가복음 10:20; 요한복음 10: 9; 요한

복음 5: 39-40; 요한복음 15: 13-15

보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니다:

요한 음 11 45,53; 마태 음 26:56; 마가
복음 15:25 (아침 9 시) 요한복음 20:29;
고린도후서 4: 6; 고린도후서 5 7;
요한일서 3: 2; 고린도전서 13:12

하나님은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신다!:

베드로후서 3:9; 디모데전서 2:4; 마태복음
18:14; 요한복음 3:16

예수님을 섬김과 예수님을 거부함:

요한복음 9:38; 마태복음 14:33; 요한복음
10:20; 고린도후서 5:16

깊고도 조용한 계시: 마태복음 16:20;

마가복음 1: 24,34,44; 마가복음 4:11;
이사야 6: 9; 고린도후서 5:16; 시편 42: 7;
마태복음 13:44

예수님 안에 있는 보혈&자유: 이사야
1:18; 시편 25:15; 고린도후서 5:17;
갈라디아서 2:20; 누가복음 4: 18 / 이사야
61: 1; 이사야 42 : 3; 역대하 7:14; 고린도
후서 5:21; 히브리서 9:22; 히브리서 12:24
성령: 요한복음 14:1-4; 요한계시록 1:13-
18; 고린도전서 13:12; 요한복음
14:17,26,28

초청 & 새로운 삶: 에베소서 1: 13-14;
골로새서 1:27; 잠언 4:18; 요한복음 5:24;
마가복음 1:15; 마태복음 3: 8; 사도행전
3:19; 로마서 10 : 9; 누가복음 10:20;
고린도후서 5:17; 히브리서 10:25; 시편 1;
여호수아 1: 9; 히브리서 4: 12/2
디모데후서 3:16